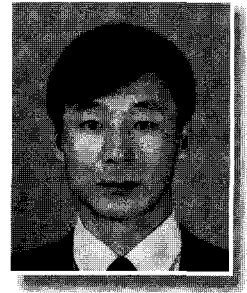


6월의 사슴 사양관리



김 상 우 연구사
축산기술연구소

□ 사슴의 마취

사슴을 마취시에는 나이, 체중, 건강도, 계절, 성별, 흥분상태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마취를 실시하여야 한다. 먼저 나이는 1, 2, 3, 4~11, 12~15, 16세 이상으로 구분을 하며, 건강도는 정상을 100%로 한다면 마른 것은 80~85%, 질병이 진행된 것은 60~65%, 항생제를 많이 사용한 것은 60%, 심한 탈수 및 사람이 만져도 되는 정도는 40% 또는 마취불가의 상태가 된다.

또한 사슴은 계절에 따라 마취되는 반응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하며 보통 6월~8월을 100%로 보았을 때 9월~10월은 80~

85%, 11월~3월은 55~65%, 4월 85%, 5월은 85~90%로 보면 된다. 생후 5개월 이내의 암·수에는 차이가 없으며 생후 6개월에서 10개월령 암컷은 수컷의 70%를 생후 1년 이상 암컷은 수컷의 60%정도이면 된다. 과도한 흥분상태에서는 마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, 과도한 흥분은 마취 없이도 폐사가 될 수 있으며(소장출혈), 입술을 심하게 다쳐서 피가 많이 나거나, 혈떡거림이 아주 심한 것, 녹용을 많이 다친 것은 절각을 12~24시간 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사슴의 체중은 특히 계절별로 차이가 심하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되겠다.

<표 1> 자육 및 육성목의 체중

(단위 : kg)

구 분	성별	생시	3	6	9	12	15	18	21	24개월
꽃 사슴	♀	3.84	22	33	36	41	45	48	53	55
	♂	4.15	23	36	39	49	56	58	60	70
레드디어	♀	7.33	30	48	54	63	69	71	75	83
	♂	7.51	33	52	66	78	87	92	93	105
엘 크	♀	15.8	61	97	122	147	168	181	197	214
	♂	18.0	83	127	153	173	188	203	219	238

<표 2> 성록의 월별 체중변화

(단위 : kg)

구 분	성별	2	3	4	5	6	7	8	9	10	11	12월
꽃 사슴	우	60	60	61	66	61	60	62	62	59	60	61
	♂	88	85	87	92	94	97	99	104	91	88	87
레드디어	우	96	96	102	107	99	93	95	89	88	93	94
	♂	138	137	140	147	156	163	172	173	144	141	142
엘 크 (3세)	우	214	219	233	244	226	220	228	217	212	226	227
	♂	267	270	271	275	280	284	291	298	296	295	295

<표 3> 절각시 성록 체중

(단위 : kg)

구 분	1세	2세	3세	4세	5세
꽃 사슴	50±6	68±6	80±8	88±4	93±5
레드디어	74±5	107±24	137±3	156±1	159±1
엘 크	163±7	238±3	280	305	350

국내에서 사슴에 이용되고 있는 마취제는 썬시콜린, 럽푼, 켈락탈, 로마진, 키시라질, 사슴OK 및 펜타진 등이 이용되고 있다. 썬시콜린은 근이완제이고 기타 대부분의 약제들은 자이라진(xylazine)이 주성분이다. 럽푼은 자이라진이 2% 들어있는 마취제이며, 이 약들에 대한 회복제로 사용되는 콘트랄-H 와 안타코질의 주성분은 요힘빈이다. 사슴OK는 국내에서 임상 수의사가 조제한 마취제이다.



▲ 사슴마취시에는 나이, 체중, 건강도, 계절, 성별, 흥분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.



<표 4> 마취약 량분과 섹시콜린의 장·단점

구분	장점	단점
량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서히 마취되므로 스트레스 충격을 덜 받는다. ○ 흥분된 사슴을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. ○ 안정성이 높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취되는 시간이 길다. ○ 회복되는 시간도 약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된다. ○ 개체별 사용량의 범위가 크다. ○ 보정을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. ○ 흥분된 상태나 고온기 때는 사용치 말아야 한다.
섹시콜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쉽게 쓰러지고(약 5~15분 소요), 쉽게 깨어나며(약 40~50분),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된다. ○ 보정에 사람이 많이 필요없다. ○ 여러 마리 절각시 분리작업이 용이하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갑자기 쓰러지므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. ○ 깨어날 때 버둥거리므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다. ○ 흥분된 사슴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. ○ 간혹 신경이 마비되어 기립 불능을 초래한다.

어떠한 마취제라도 100% 절대 안전한 약은 없으므로 마취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위의 마취시 고려사항을 숙지함은 물론 산소 호흡장치, 인공호흡기, 강심제, 호흡촉진제, 회복제 및 해독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.

2-3종류의 마취제를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마취제를 선택하고 정확한 마취제 용량을 결정하고 목이나 엉덩이에 한번에 정확하게 주사하는 것이 마취를 잘하는 것이며 뛰는 사슴을 마

취하는 것은 금물이다.

합사 중이던 사슴을 절각하기 위하여 갑자기 한 마리만 격리시키면 흥분 또는 부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리 중에서 마취제를 놓은 후 쓰러지면 나머지 사슴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2-3일 전에 격리해 두었다가 마취하는 방법을 이용한다. 위의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다 숙지하고 응용하였다고 해도 사슴은 개체간에 마취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. **한국양육**